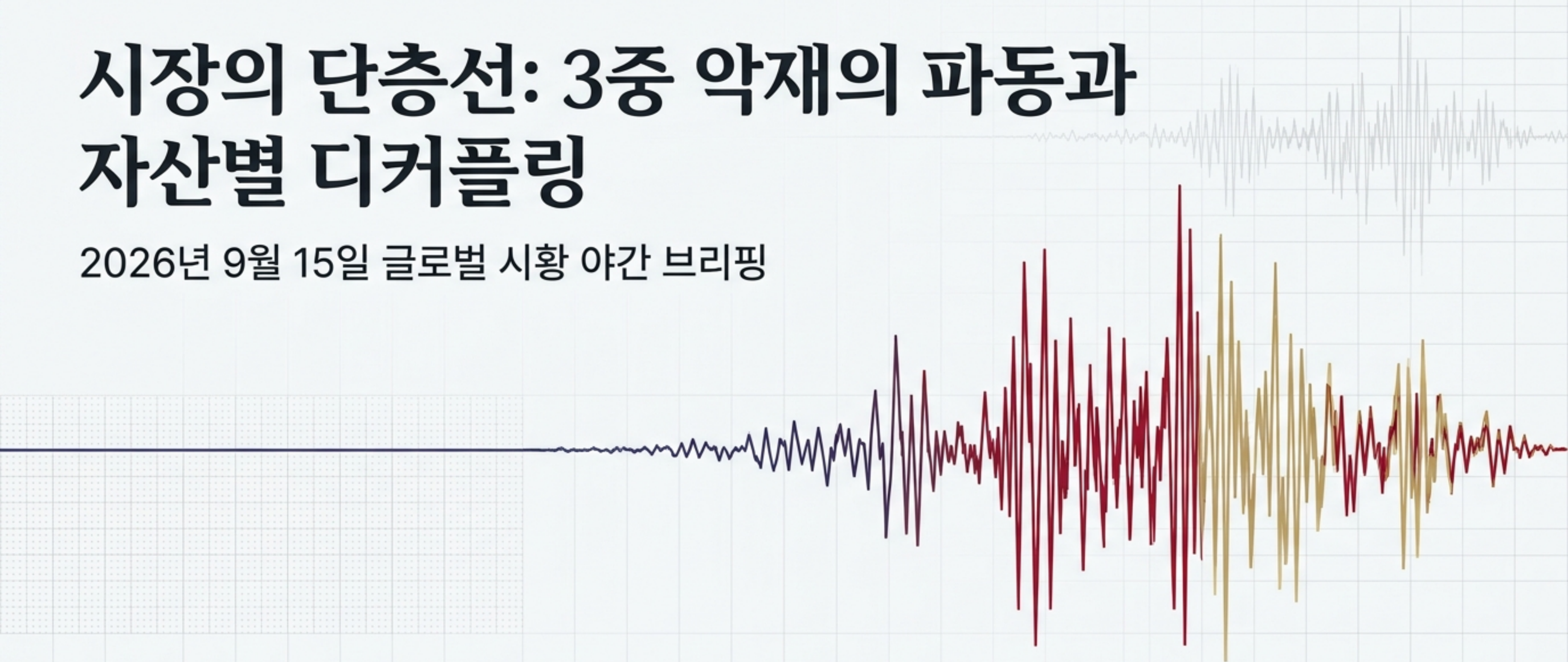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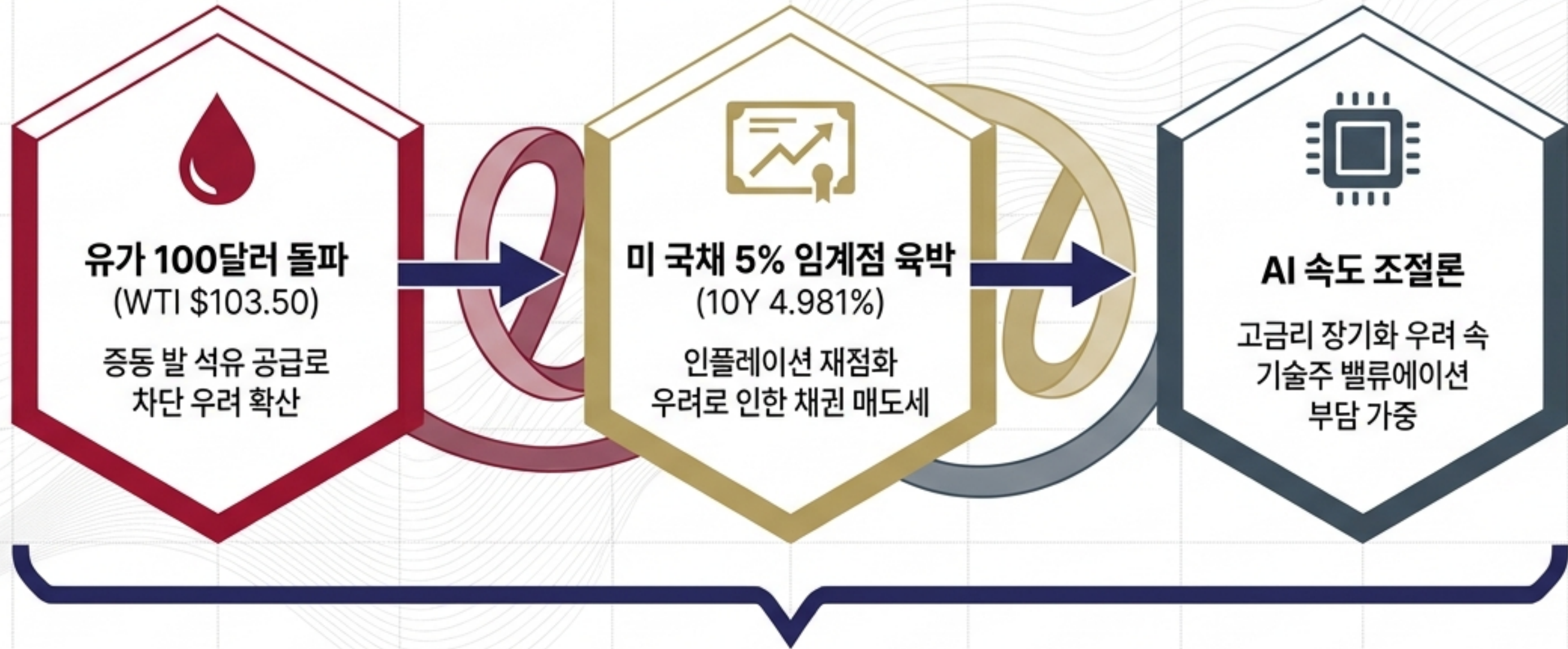
시장의 단층선: 3중 악재의 파동과 자산별 디커플링

2026년 9월 15일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



리포트 유형: 야간 브리핑 | 데이터 기준: 2026-09-15 22:05 KST

글로벌 증시를 뒤흔친 '3중 악재'의 연쇄 작용



3개의 거시적 충격파가 장중 반등 시도를 차단하며
글로벌 자산군의 변동성을 극대화 중.

FICC 시그널: 임계점을 돌파한 매크로 지표와 안전자산 쏠림

The Shock



미 국채 10년물

4.981% (+5bp)

FOMC 매파 기초 경계감 반영.
5% 쇼크 임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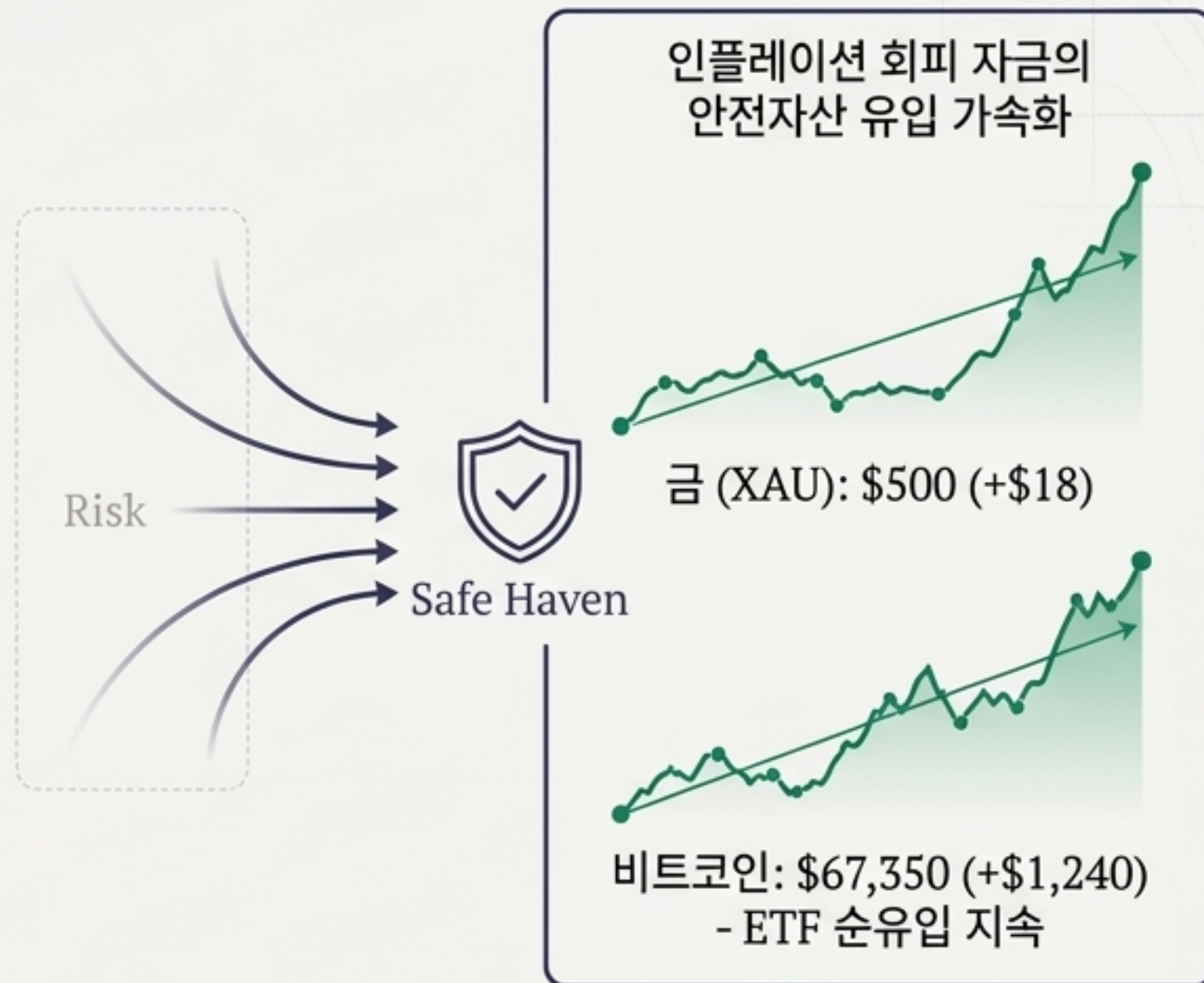


WTI 원유

\$103.50 (+\$2.6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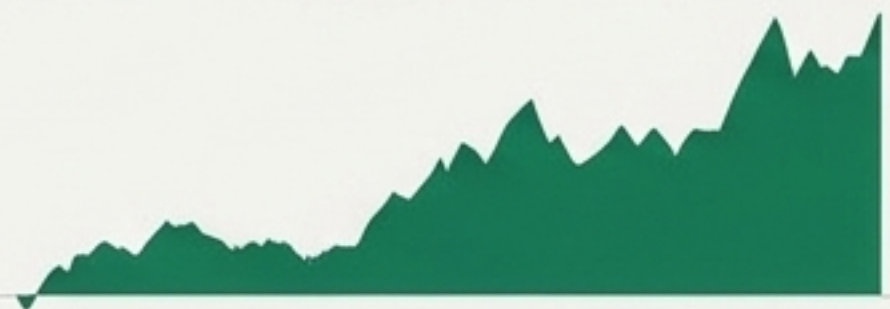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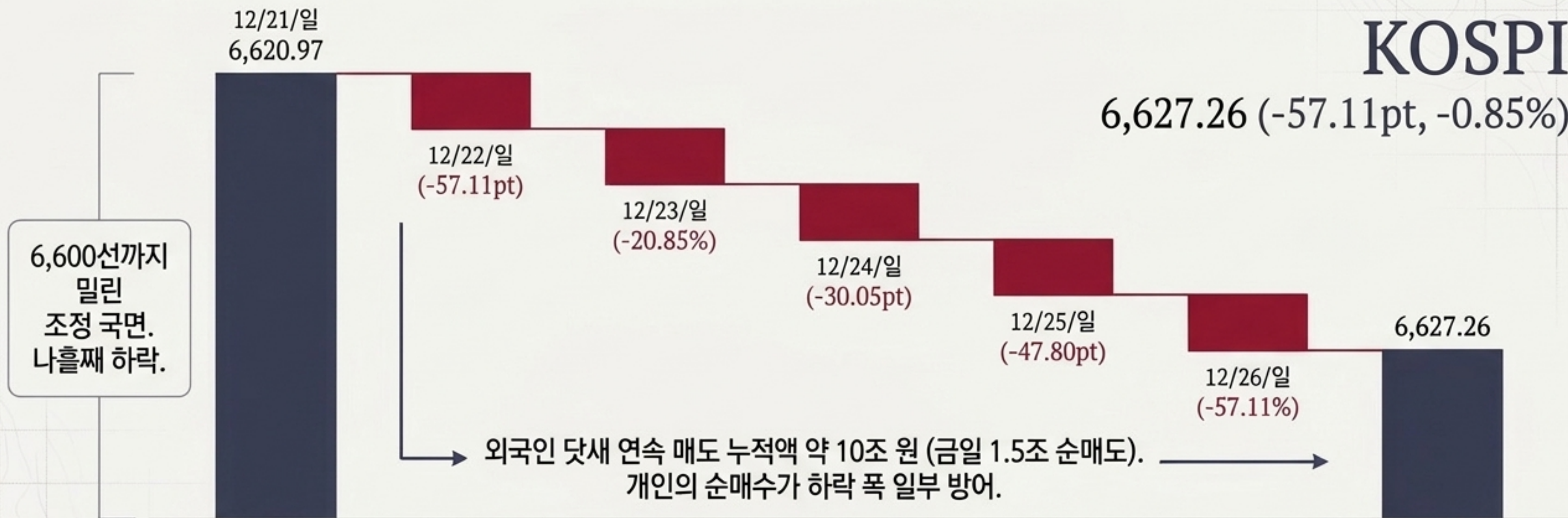
OPEC 감산 연장 및 중동 정세
악화로 100달러 선 돌파

The Flight to Safety



테이터 노트: 달러인덱스 0.5 (-0.32) - 유로 강세에 따른 일시적 악세

코스피 수급 블랙홀: 금리 쇼크가 촉발한 외국인 10조 엑소더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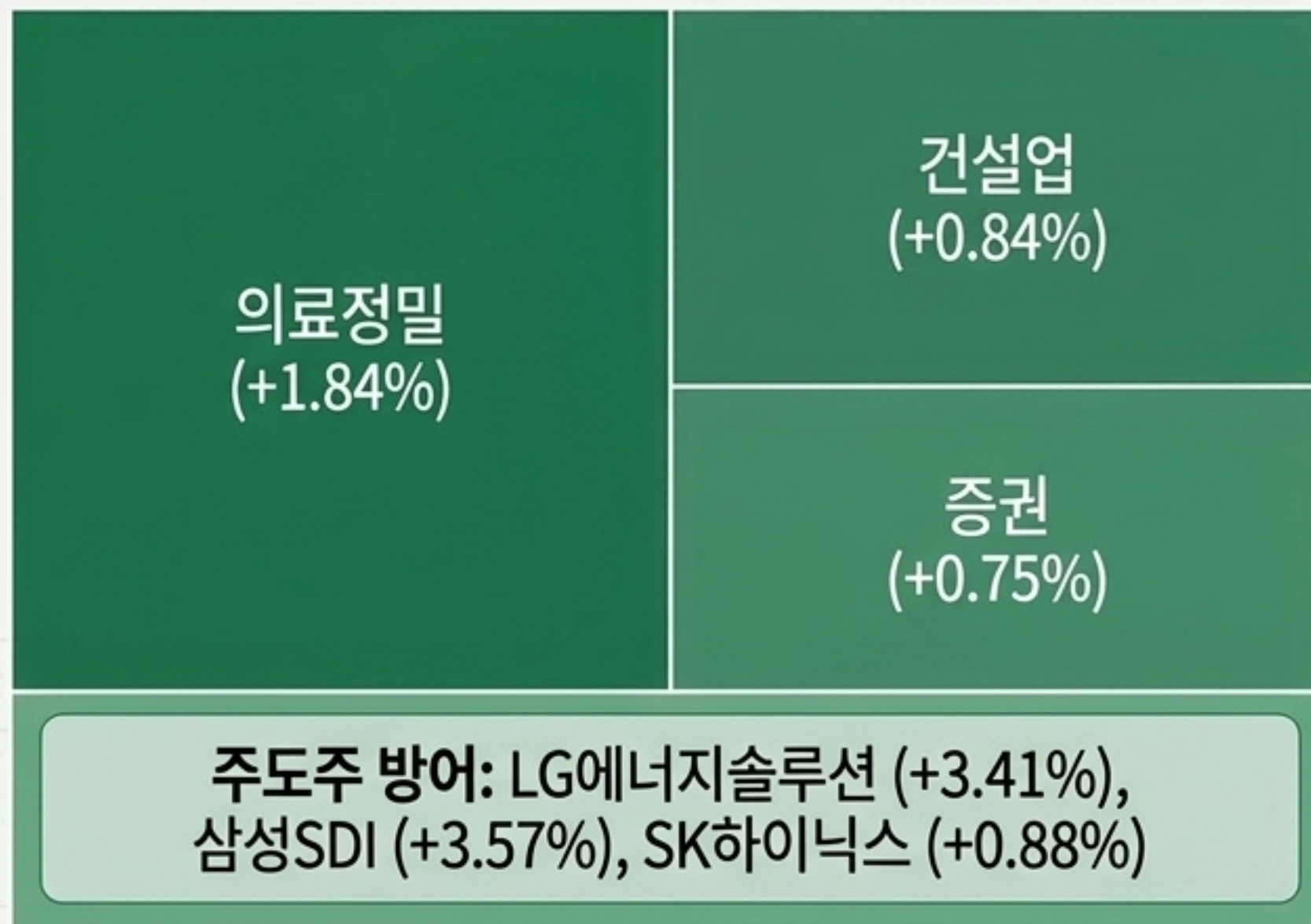


KOSDAQ 812.41 (+5.62pt, +0.70%)

코스피와 엇갈린 사흘 만의 소폭 반등 시현.
향후 외국인 매도세 둔화 여부가 단기 방향성의 핵심.

KOSPI 섹터 히트맵: 내수 침체와 방어주의 극명한 온도차

The Winners



The Losers



인사이트: 금리 인상과 유가상승에 취약한 인프라/소비재 섹터 집중 매도.
반면 특정 시총 상위 배터리/반도체주가 지수 하방을 방어 중.

US 마켓: 'AI 속도 조절론' 속 기술주 내부의 자금 회전

NASDAQ 26,186.41 (+0.87%) | DOW 52,421.20 (-0.29%)

AI 반도체
섹터

반도체에서 이탈한 기술주 투자 자금이
사이버보안주로 급격히 유입되며 나스닥 상승 견인.

'AI 속도 조절론' 확산 및
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
반도체 섹터 약세 및 자금 이탈.

사이버보안
섹터



나스닥 23시간 거래 인프라 도입
(Amaero, 프로퓨사 등 상장 요건 이슈와 맞물린 거래소 변화 주목).
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진단 매트릭스: 누가, 왜 버티고 있는가?

 미국 (US)	 중국 & 항셱 (CN/HK)	 유럽 & 일본 (EU/JP)
흐름: 혼조 및 약세 (다우 -0.29%)	흐름: 상승 반등 (항셱 +1.59%, 선전 +0.62%)	흐름: 동반 강세 (DAX +0.80%, 닛케이 +0.46%)
정책 기초: 긴축 기초 (FOMC 경계)	정책 기초: 부양 정책 유지	정책 기초: ECB 금리 재평가 / 일본 긴축 재개 악재 선반영
주요 변수: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, 반도체주 하락.	하방 방어: ‘먼저 맞은 때’ 인식 및 AI 하드웨어 투자 지속이 금리/유가 압박 상쇄.	하방 방어: 유럽은 우크라 평화협상 기대 속 방산주 강세, 일본은 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강세.

환율의 역설 (The FX Paradox): 유가 급등을 방어한 원화의 방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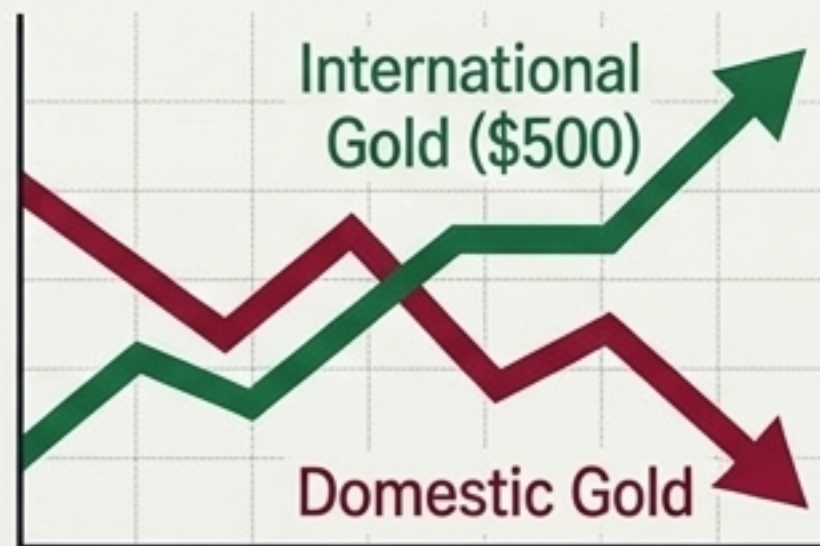


국제 유가 상승
(WTI \$103.50)



원/달러 환율 하락
(1,354.57원, -5.30원)

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
완충 효과를 발생시켜,
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
국내 수입물가 3개월 연속 하락.



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로
상승(\$500, +\$18)했으나,
국내 금 시세는 원화 강세
악재가 반영되어 국내외 가격
가격 흐름 상반(하락 마감).

주간 매크로 로드맵: FOMC 카운트다운과 주요 변곡점 (9/16 ~ 9/18)

수요일 (9/16):
중국 지표 및 ECB

- 中 소매판매(예측 0.7%)
및 실업률
-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

목요일 (9/17):
미국 소비 지표의 가늠자

- 美 핵심 소매판매(예측 0.5%)
- 일반 소매판매(예측 0.8%)

금요일 (9/18):
운명의 금요일 (FOMC) ★★★

- 美 Fed 기준금리 결정
(예측: 4.00%, 이전: 3.75%)
[25bp 인상 예상]
- FOMC 경제전망(Economic
Projections) 및 파월 의장
기자회견
- 유럽 핵심 CPI(예측 2.4%) 발표

최종 관전 포인트 (Actionable Takeaways)



외국인 매도세 둔화 여부 체크

미 **국채 10년물 4.981% 급등**이 촉발한 외국인의 코스피 닷새 10조 순매도. 해당 수급 블랙홀의 완화 시점이 국내 증시 반등의 1차 관건.



목~금 최대 변곡점 (소매판매 & FOMC)

유가 **100달러 돌파**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된 가운데, 목요일 **미 소매판매 실적**과 금요일 FOMC의 **25bp 인상 여부** 및 파월의 입에 시장 방향성 집중.



안전자산 랠리의 지속성과 환율

금 **500달러 돌파** 및 **비트코인 6만 7천 달러 강세**. **원화 강세(1,354원대)**가 수입물가와 **국내 방어 기제**로 계속 작동할지 예의주시 필요.